

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아리인 정기로 빛아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하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불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제906호

교수 논문실적 매년 12.5% 증가… ‘연구역량 프로그램’ 효과

행·재정적 지원 뒷받침… ‘대학평가’ 향상 기대 일각선 “자발적인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제주대 교수들의 논문실적이 2008년 1인당 0.75권에서 2012년 1.25권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단체(후보)지나 SCI 등 전문학술지에 실린 양이 증가하면서 질적인 측면도 향상됐다.

교무과에 따르면 교수들이 1년에 게재한 논문 수는 지난 2008년 426.21권에서 2009년 461.53권, 2010년 526.77권, 2011년 601.54권, 2012년 728.25권으로 매년 늘었다. 1인당 논문 수는 2008년 0.75권에서 2012년 1.25권으로 12.5%씩 증가한 셈이다.

단순히 논문 수 증가가 아닌 질적으로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논문

실적을 보면 국내외 일반 논문 수는 5년 동안 비슷했지만 국내 전문 논문과 국제 전문 논문은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 논문은 국내는 한국연구재단, 국제는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등 저명지에 실린 경우를 말한다.

대학본부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연구실적 제고를 위해 인사 제도에서 논문 실적을 크게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따로 마련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국제학술회의 논문 발표 지원금, 논문발표 및 정책연구장려금 지급 등 23개에 달하는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박세필 교수는 사후 복제 후유서 세계최초 2세 생산에 성공했고, 이중우 교수팀은 퇴행성 시신경 질환의 발병기전 연구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보이며 ‘연구 중심’ 명문대학 목표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교수 연구가 2008년 49위에서 2013년 33위로 16단계를 올라섰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교수 연구 분야는 교수들의 논문 실적과 함께 재정지원 등 대학본부의 노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논문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대학이 움직이고 있다. 교수들의 자발적인 연구 역량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학평가 성적 향상만을 위해 연구실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낙진(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논문을 많이 쓰면 교수의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강의 역량도 올라서는 만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논문을 많이 쓰는 것을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영진 교무팀장은 “교수들의 논문 수 향상은 우리대학 교수들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대학평가 요소에 논문의 양과 질을 동시에 보고 있다”며 “논문 수 증가 등 여러 노력을 통해 내년에는 대학평가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학생생활관 방학 특별개관

12월 1일까지 하영드리미로 신청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애)가 12월 1일까지 1일까지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다. 신청은 하영드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허가자 발표는 다음달 4일 발표되며 생활관비 납부는 6일까지 수납은행 방문,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학생생활관(전화 754-4677)

학력 증진프로그램 ‘마중물’

한국사 등 4과목… 12월 8일까지 접수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이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마중물’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2일부터 8일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 휴학생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사(전영준 사학과 교수) △글쓰기(손기범 국어교육과 강사) △기초미적분학(이경연 수학교육과 교수) △기획서제안서 작성과 스피치(하진의 초등교육과 강사·이정민 JIBS 아나운서·홍효정 기초교육원 연구원)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문의=기초교육원(전화 754-2056-7)

중앙도서관 공사소음으로 학생들 ‘불만’

도서관 측성 소음 70dB 초과 “소음 방지에 최선 다할 것”

제3도서관 신축과 중앙도서관 공기순환기 설치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소음이 발생해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앙도서관(관장 한석지)은 지난달 14일 도서관 내 공기순환기 설치 공사와 이달 3일부터 제3도서관 증축 공사를 시행했다. ‘제3 도서관’은 연면적 7000㎡의 거대한 규모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6년 10월말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다.

도서관 내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인 도서관 내 소음 수치는 약 40dB 안팎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소음 측정기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의 소음은 약 90dB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 내부에서도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약 70dB정도의 수치가 잡혔다.

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생활소음·진동규제법 제 20조 3항을 보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소음은 아침·저녁(5시~7시, 18시~22시)에는 60dB 이하, 주간(7시~18시)에는 65dB 이하, 야간(22시~5시)에는 50dB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제기준이 제시돼 있다.

도서관 내 소음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소음에 대한 학내여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



중앙도서관 공기조화기 설치. 제3도서관 건축으로 인해 도서관내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시끄럽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다. 김보라(지구해양학과 1)씨는 “공부하는 열람실 안에서도 공사 소음이 커서 아예 단과대학의 비어 있는 강의실을 찾아 공부하고 있다”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공간인 만큼 소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준환(언론홍보학과 1)씨는 “시험기간이 다가오는데 크고 작은 공사가 두 개나 진행돼서 불편하다”며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제2도서관을 많이 찾은 텐데 벌써부터 자리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 측은 대체로 소음문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고석호(제3도서관 증축 현장대

리인)씨는 “현재 중앙도서관 뒤편에서 공사 시공이 들어간 만큼 소음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방음벽 설치와 무진동 공법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시설과 관계자는 “신축 건물 자체가 민감한 구역인 만큼 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와의 설비 논의 등 충분한 단계를 거쳤다”며 “학생들에게 최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증축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옛 제주대병원에 스마트그리드센터 구축

총 380억 규모… “2017년 국제스마트그리드 인증센터로 확대”

상권 침체로 몸살을 앓던 제주시 삼도동 옛 제주대학교병원 부지에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가 들어선다.

총 사업비 380억원(국비 190억원, 민자 190억원) 규모의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가 옛 제주대병원에 구축될 가운데 지난 25일 제주대에서 제주대와 제주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선도사업인 ‘스마트그리드 제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축적한 전기자, 스마트가정,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 다양한 실증정보를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기의 호환성 및 표준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시험장비와 설비를 개발하고 구축해 스마트그리드 확산 전에 상호운용성 검증과 안정적인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옛 제주대병원에 대한 리모델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시설 설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위해 제주도와 협의를 추진하고, 건물사용에 따른 임대 계약 등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25일 제주대 사회의실에서 하창진 총장과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박천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험센터는 1단계로 내년까지 장비를 구축하고, 2단계로 2016년까지 시범운영, 2017년부터 3단계로 국제 스마트그리드 인증센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시험센터가 옛 제주대학교병원 부지에 유치됨에 따라 제주대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연구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제주도는 실증단지에 이어 전국 유일의 2개 분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선정 등 명실상부한 스마트그리드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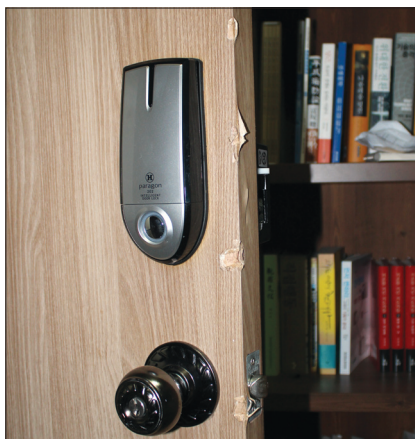
학내 도난사건 ‘빈번’… “보안관리 철저히”

최근 일부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실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국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안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8일 사회과학대학 3층 교수연구실 3곳의 문고리 주변이 뜯겨진 채 발견됐다. 연구실 2곳에서는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소액의 현찰과 서류가 사라졌다고 한다. 또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실 일부에도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

이에 총무과는 보안관리를 위해 스티lish 시 무인전자감비시스템 작동할 것 △‘실열쇠’ 및 ‘개인도어락 비밀번호’를 조속히 ADT CAPS 상황실로 인계 △연구실(사무실) 내 다액의 현금·귀중품 등 보관 자재 등을 요청했다.

강경태 기자



알림

이번 학기는 제906호 신문으로 중단합니다. 다음호 제주대신문(신년특집호·백록학술상특집호)은 2014년 1월 1일(수)자로 발행됩니다.

2014학년도 제1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부, 전공)	인원	채용분야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	1	매스커뮤니케이션전문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1	조경학
해양과학대학	해양시스템공학과	1	해양플랜트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	식물생태학
	생물환경복지학부 아동(장애)복지전공	1	아동복지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1	식품가공
	에너지공학과	1	원자력시스템
수위과학대학	수위학과	1	말임상학
대학원	통역공학부	1	대형통역발진시스템설계
전임교원 소계		9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기금교수)	1	외과학(간, 담, 췌)
		1	응급의학(중환자치환, 환경응급)
		1	내과학(신장내과)
		1	내과학(소화기내과)
		1	내과학(혈액종양내과)
		1	정형외과학(술장절 및 스포츠 손상)
		1	안과학(망막)
		1	피부과학(아토피, 건선)
		1	영상의학학(영상)
		1	비뇨기과학(비뇨기종양, 배뇨장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기금교수)	1	민법
기금교수 소계		12	
합 계		21	21분야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 지원 자격

-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에 4년 이상인 자.
- 3) 영어강의 가능성(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 단, 예·체능·인문(기금) 등 특수분야는 제외) - 공개발표 시 참조

나. 분야별 지원 자격

전 임 교 원

1) 매스커뮤니케이션전문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2) 조경학, 식물생태학, 아동복지, 식품가공, 원자력시스템, 대형통역발진시스템 설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해양플랜트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4) 말임상학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임상경력 5년 이상인 자(단, 박사학위 소지자는 임상경력 2년 이상).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5) 정형외과학(술장절 및 스포츠 손상)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술장절 및 스포츠 손상 분야에서 전임의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2) 외과학(간, 담, 췌), 응급의학(중환자치환, 환경응급), 내과학(신장내과), 내과학(소화기내과), 내과학(혈액종양내과), 안과학(망막), 피부과학(아토피, 건선), 영상의학학(영상), 비뇨기과학(비뇨기종양, 배뇨장애), 핵의학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민법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10.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 공채 세부일정 : 세부일정표 ‘붙임’

4. 임용조건 등

2014. 3. 1. 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단, 기금교수는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함.

*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제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 채용 시 1개 강좌 이상 영어강의 의무 실시(단, 예·체능·인문(기금) 등 특수분야는 제외)

5.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교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절차에 의함.

6. 제출서류

가. 채용분야 공통

- 1)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붙임서지) 1부.
- 2)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각 1부.
- 3) 외국어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4)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5) 연구실적목, 연구실적목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붙임서지).
- 6)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목 각 1부.

※ 논문은 게재일자, 권(호), 게재처, 페이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1) 말임상학 분야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2) 정형외과학, 외과학(간, 담, 췌), 응급의학(중환자치환, 환경응급), 내과학(신장내과), 내과학(소화기내과), 내과학(혈액종양내과), 안과학(망막), 피부과학(아토피, 건선), 영상의학학(영상), 비뇨기과학(비뇨기종양, 배뇨장애), 핵의학

2013. 11. 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사 설

2014 학생회에 바란다

2014학년도를 이끌어 갈 제46대 총학생회를 포함한 4대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가 모두 끝났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각각 선거운동본부가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보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또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 이 시점에 새로운 학생회에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본다.

첫째로, ‘학생들의 대변자와 대표자 모습’을 기대해 본다. 대변자 역할이 아주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학생회의 입장보다 일반 제주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대학 당국과 교수님들께 요구 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즉, 우선순위가 학생회가 아닌 학우들의 욕구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캠퍼스 곳곳을 돌아봐야 하고 학우들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외 활동에 있어서, 일반 제주대인의 대표자로 당당함과 자긍심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당연히 당당함과 자긍심에 걸맞은 내공을 키우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일반 제주대에게 필요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해 본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축제인 ‘아라대동제’와 ‘아라체전’의 역할이다. 많은 예산과 노고가 필요한 이 두 축제는 과연 제주대인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일회성 행사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학생회 사업들이 학생들을 위로하는 사업인지, 학생들을 지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긴 인생 여정에 비하면 4년이라는 대학생살이 아주 짧은 기간 같지만, 인간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간이다. 이런 기간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공감 프로그램’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국립 제주대학교의 ‘발전의 한 축’이 되길 기대한다. 성급하게 1년 안에 모든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임기 기간 동안에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이 국립 제주대학교의 영원한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1년이라고 생각해서 사업들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 번 ‘진짜’ 총학생회, ‘우선순위’ 총대 의원회, ‘자기부타’ 총여학생회, ‘당.신.의’ 동아리 연합회의 당선을 축하한다.

‘핵심역량’ 교과목 방향전환 절실

현재 우리대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양교육과정을 학문기초교양·균형교양·핵심역량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역량은 2011 교양과목 개편에서 가장 특징적인 편성이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핵심역량 교과목 운영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사례라는 게 중론이다.

교무처에서 펴낸 『2011 교육과정』에는 “핵심역량은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능력 향상에 관한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핵심역량으로 개설된 과목은 ‘사회인과 대인관계’, ‘조직생활과 소통’ 등인데, 과연 이런 교과목이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구성원들이 많다.

교과목 설명을 보면,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 이러한 능력을 쌓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습한다”,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등으로 돼 있어, 주로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익히는 교과들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입생(핵심역량 과목은 거의 1학년 때 이수함)에게 직장생활 가이드 같은 과목을 가르쳐서 무얼 하겠다는 건가?

특히 이 과목들은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시스템을 통해 평가와 인증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바,

이 역시 문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즉, 직업교육 전문 기관이지 교양교육 관련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역량 교과목 운영을 담당하는 기초교육원에 묻는다. 과연 그동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았으며, 그 결과는 어떤가? 그동안 핵심역량 교과목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

전남대와 건취보면 우리 핵심역량 교양교육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남대 교양과정의 경우 영역을 핵심·기초·일반의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전남대의 핵심영역은 ‘문학과 예술’(7과목), ‘역사와 철학’(6과목), ‘사회와 이해’(8과목), ‘자연의 이해’(9과목) 등 4개 세부영역을 두어 세부 영역별로 1과목씩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문횡단형 자기주도학습으로 융복합적인 역량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

우리의 핵심역량 교과목은 환골탈태해야 마땅하다. 대학인의 핵심역량은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익히는 게 아니다. 2015학년도부터 새로 운영될 교양교육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사라캠 학생생활관 시설·수용인원 등 개선 요구 ‘붓물’

‘상시 온수 배급, 남학생 수용인원 증대’ 등 호소 생활관측 “재정문제로 당장 해결하긴 어려워”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 내의 시설 문제와 수용인원 부족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에는 학기 중에 100여명이 살고 방학 중에는 40여명이 생활한다. 하지만 11월말 현재 생활관내 온수 제공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하루 4시간으로 한정돼 있어 학생들이 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찬물로 씻고 있다.

오원목(초등교육학전공 1)씨는 “수업 이후 샤워를 하고 싶어도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라캠퍼스 생활관이 겨울에만이라도 온수를 상시로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역도 한 학기에 한번 씩 실시돼 관내 위생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내에 벌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방역 시수는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정은(초등국어교육전공 2)씨는

“아라캠퍼스 학생생활관 학생들의 한 학기 69만원(3인실 기준)과 비교해 사라캠퍼스 생활관 학생들은 입주비로 한 학기에 100만3000원을 낸다”며 “사라캠퍼스 학생들의 입주비가 더 비싸지만 위생 등 여러 부문에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 남녀 성비를 불균형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라캠퍼스 재학생은 여자 323명 남자 197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1.64대 1이다. 하지만 기숙사 입주는 여자 82명 남자 18명 등으로 4.5대 1로 재학생 성비와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남녀의 생활관 맞교환으로 관생 성별 수용인원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 학기 생활관에 입주하지 못한 이동훈(초등윤리교육전공 3)씨는 “생활관에서 남학생을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면서 “사라캠퍼스 생활관은 여학생들은 1관에 34명, 2관에 48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학생생활관 내의 시설문제, 수용인원 부족문제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양 캠퍼스 생활관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명, 남학생은 3관에 18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여옥 실무관은 “적은 수용인원과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의 온수시간과 방역 시수를 가지고도 재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빠듯하다”며 “사라캠퍼스와 아라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 수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라캠퍼스 생활관 자체에

서 어떤 뚜렷한 개선책과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 양 캠퍼스의 학생생활관을 통합운영해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 맞교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많이 남학생들이 비교적 작은 건물에 배정받게 됐다”며 “지금은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찬우 기자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해 IT 관리비용 절감”

인터뷰 이상준 정보통신원장

이상준(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지난 11월 20일자로 신임 정보통신원장에 임명됐다.

▶취임소감은?

“정보의 제공과 이용 방법이 급변하는 시기에 정보통신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정보통신원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전임 정보통신원장들의 수고에 힘입어 정보서비스의 질이 타 대학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정보통신원은 새롭게 편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고민을 항상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캠퍼스 전체에 전산실습실은 약 40여 개실이 있으며 1200여대의 PC가 있다. 이를 5년마다 교체하다 보니 비용이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그 비용 중 하드웨어와 관련한 비용도 많지만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체 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정보통신원 PC 실습실과 교재 주기가 도달된 PC를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중앙관리형 IT실습실로 전환하겠다. 이를 통해 응용소프트웨어 사용에 부담이 없고, 관리비용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겠다. 초기에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은 웹 위주로 활성화됐지만 하영드리미, 스마트러닝, 모바일 웹메일 등으로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완성도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20% 선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임기 내에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홈페이지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신경써야할 부분은 항상 최신의 내용을 제공하는데 있다. 물론 홈페이지 디자인에도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홈페이지 내용이 방대한 정보통신원에서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시 지적 해주면 조속히 개선하겠다.”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대책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원은 의견이 수렴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완성도를 위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개선책에 대해 결정하겠다.”

김동현 기자

영주어문학회

12월 6일 학술대회

영주어문학회(학회장 허남춘)는 12월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양관(인문대학 1호관) 3층 제주문화원형체험관에서 ‘2013 하반기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 ‘미력조상 관련 본풀이 전승과 신앙 양상’ △ ‘김광협 의 농민시에 대한 고찰’ 등을 주제로 개인 발표회로 진행된다.

미래영어영문학회

30일 추계학술대회

미래영어영문학회(학회장 송일상)는 오는 30일 12시 30분부터 외국어교육원 2층 강의실에서 ‘2013 추계 전국학술대회’를 연다.

‘영어영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3개 주제 18개 발표가 진행된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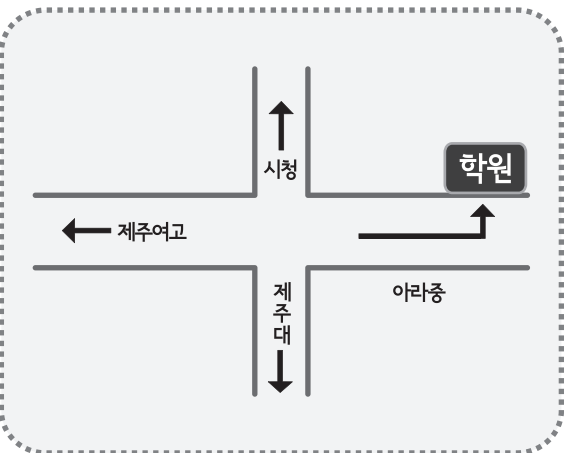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www.jnuri.net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동!

미래를 여는 제주의 새 패러다임! <제이누리>가 있습니다.

제주를 여는 창!
jnuri

인터넷 뉴스 & TV

제보 및 문의 : 064-748-3883

FAX. 064-748-3882

E-mail. jnuri@jnuri.net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캠퍼스와 첨단과학단지 잇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ICT·BT·신재생 에너지 중심
이남호 산학협력단장 발표

산학협력단(단장 이남호)을 중심으로 제주대 캠퍼스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잇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추진된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 포럼’을 열었다.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강정일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유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남호 산학협력단 단장은 주제발표에서 “산학협력이 산업과 대학의 물리적인 결합이라면 산학융합은 이들의 화학적인 결합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제주대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이 하천에 다리를 건설해 하나의 캠퍼스 산업지구를 만들어 BT(생명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점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단장은 제주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의 이유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2차산업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에 종속되지 말고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산업거점으로 만들자”고



22일 오후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를 주제로 이남호 산학협력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제안했다.

이 단장은 융합지구 구성을 통해 “도내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오암해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컨트론타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융합지구 예정부지에서 도내 산업단지, 폴리텍대학, 국제대 등 유관기관까지 한시간 미만”이라며 이 곳이 최적의 입지임을 입증했다.

또 이를 통해 산학협력,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돼 제주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에도 타 지역 기술혁신

기업의 이전 촉진 등을 통한 산업체 경쟁력 강화, 제주 특화형 산학협력 인재창출 모델 개발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종합토론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산학융합 지구에 ICT, BT,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 등 제주의 특성화 산업도 융합지구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영신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단지협의회 회장은 “MICE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을 융합한 산업) 등의 제주

만의 특화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제주대가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등과 연계해 관련분야 특성화에 힘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진태 원장은 “지역전략산업이 융합지구 유치성패를 가른다”면서 “제주의 전략산업자원을 활용을 극대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올해 2월부터 정부지원 마련을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유치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명하고 타 지역 산학융합지구를 벤치마킹하는 등 유치를 추진해왔다.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제주소재 대학,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내년 4월에 제주산학융합본부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확정되면 5년간 32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의 산학융합지구 추진방향’ (홍진기 산업연구원 팀장), ‘충북산학융합지구의 추진현황’ (홍진태 충북 산학융합본부 원장), ‘제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학협력 수요조사’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발표도 진행됐다.

김명지 기자

‘옛 그림과 글씨’

제주대 박물관서 펴내

제주대박물관(관장 김동진)은 최근 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제주를 품은 옛 그림과 글씨’를 발간했다.



이 도록은 개교 6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제주 서화의 맥’ 특별전을 계기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제주의 서화 63점을 선별해 수록했다.

제주의 옛 그림과 글씨 속에는 제주 사람들의 직박한 삶과 문화가 오롯이 담겨 있다. 내면을 다스리고 그 예지(禮智)의 담백함을 보여주는 서예, 생활의 활력을 보여주는 민화, 기록과 염원을 담은 종교화,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담았던 산수화가 그 것이다.

도록의 구성은 문학, 윤리, 종교, 인생관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주문사(文士)·화인(畵人)들의 작품과 제주와 관계가 있는 국내 명사들의 서화가 담겨있다.

이번 도록은 제주대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여덟 번째 소장유물 도록이다. 제주대박물관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으나 상설전시나 특별전시를 통해 쉽게 볼 수 없었던 소중한 문화유산 선별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소장품의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고양하고자 매년 박물관 소장유물 도록을 펴내고 있다.

GTEP 해외시장조사

홍콩 미용박람회 참여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단장 이용완)이 지난 13일부터 3일간 홍콩 코스모프로프(Cosmoprof) 2013 미용전시박람회에서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의 수출활동을 벌였다. <사진>

사업단은 협력업체인 도내 6개 기업(프림제주, 파라제주, 스킨팜, 리코리스, 송이산업, 어반파머즈)과 함께 참가했다. 이날 외국바이어와 상담 및 시장조사, 디스플레이, 현장판매, 마케팅을 벌였다. 사업단은 이날 해외 바이어들에게 8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샘플판매로 4만7000 홍콩달러(약 660만원)의 실적을 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이니스프리 공모전서 대상 수상

김동철·이동운·김호진씨
제2회 마케팅 공모전서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과 (주)이니스프리(대표이사 안세홍)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3년 제2회 innisfree Green Beauty Creator 마케팅 공모전’이 지난 19일 열렸다.

김동철(경영학과 4)·이동운(회계학과 4)·김호진(영어교육과 4)씨는 최종 프리젠테이션 발표에서 ‘제주 이니스프리 게스트하우스’라는 작품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버려져 있는 공간인 폐교를 활용, 이니스프리 게스트하우스로 브랜드 체험이 가능한 이색적인 공간으로 되살리자’는 제안으로 창의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은 ‘메밀새싹을 이용한 멀티스팟’ 제품개발을 제안한 ‘메밀새싹’ 팀 △우수상은 ‘제주스럽게 이니스프리스럽게’ 마케팅제안서를 제출한 ‘brownie U’ 팀이 수상했다. 입선작은 ‘innisfree를 Greenda’ 제품개발을 제안한 ‘검벌레’ 팀과 ‘GREEN FRIEND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이제까지!’ 마케팅제안서를 제출한 ‘GREEN FRIEND’ 팀이 차지했다.

대상팀을 포함한 5개팀에게는 1000만원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과 (주)이니스프리(대표이사 안세홍)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3년 제2회 innisfree Green Beauty Creator 마케팅 공모전’이 지난 19일 열렸다.

상당의 장학금과 아이패드 등의 상품이 제공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 주제는 ‘제주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제안’과 ‘이니스프리 제주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제안(콘텐츠, 프로모션 전략)’으로 44개 팀이 1차 접수해 실현가능성, 창의성, 논리성, 작품완성도의 4가지 심사기준을 거쳐 20개팀이 1차 선발, 결선심사를 통해 최종 프리젠테이션에 5팀이 최종 선발됐다.

LINC사업단과 ㈜이니스프리는 공모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각 팀별 ‘Pre-clinic’이라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 공모전에

참가한 인원들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니스프리는 이를 기반으로 제주대 학생들의 글로벌 향장산업 인력양성 기회 제공과 향장산업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또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했다.

이상백(LINC사업단) 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주와의 상생을 모색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니스프리를 통한 제주대 재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인재와 지역기업의 선순환적 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후원신청 부스

학생회관에서 다음달 1일까지 운영

학생회관에 유니세프 정기후원 신청 부스가 설치돼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된다.

후원은 학생회관 유니세프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후원자에게는 책자와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김도현(유니세프 홍보국)씨는 “대학생들에게 후원은 아직 생소하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후원을 단순히 돈을 기부한다는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작은 도움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기는 아름다운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수빈 기자



학생회관에 유니세프 정기후원 신청 부스가 설치돼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된다.

기초교육원 ‘글쓰기·수학 상담실’ 개설

대학원생들이 튜터로 활동… 학생들 ‘호평’



지난 10월부터 기초교육원은 리포트 첨삭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글쓰기·수학 기초학력 증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리포트는 어떻게 써야할까. 제출날짜는 다가오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모든 학생들의 고민이 아닐까 한다.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상담신청을 통해 리포트 첨삭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글쓰기·수학 기초학력 증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담실은 상담 신청서 작성 후, 기초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상담신청 시, 작성중인 리포트 등을 첨부하면 사전 검토 후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 이후 상담일시를 배정받으면 교양강의동 2층에 있는 기초교육원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쓰기(요약문, 발표문, 독후감, 에세이, 실험보고서, 전공과제물 등) 상담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수학(수학 관련 과제, 발표 등)

상담은 수학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

이 튜터로 활동하고 있다.

기초교육원 교양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마중물’과 ‘글쓰기·수학 기초학력 증진 상담실’이 있다”며 “강의 형식인 마중물 프로그램을 신청하기에는 강의 시간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기 중에 직접 상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글쓰기와 수학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쓰기 상담실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김여남(철학과 1)씨는 “글쓰기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쉬웠고 여타 글쓰기 수업과 달리 1:1 상담으로 진행되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문의=기초교육원 교양교육부(전화 754-2056~7) 박소연 기자

양채류사업단 예비취업자 인력양성 교육

18일 생명기술센터서… ‘양채류의 기능성 성분분석’ 주제

제주양채류 RIS사업단(단장 임상빈)

은 18일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예비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력양성교육은 제주도내 식품 및 유사학과 재학생(예비취업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채류의 기능성 성분 분석법’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나눠 진

행했다.

제주양채류 RIS사업단은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돼 청정 제주산 양채류의 고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지원,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홍보, 네트워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8일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제주양채류 RIS사업단이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사람들

강창희(화학과) 교수
생명과학기술센터장 임명

강창희 화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생명과학기술센터(RIC) 센터장에 임명됐다.

강 교수는 기초과학 연구소장, 공동실험실 습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천·이종후(의학과) 교수
호흡기학 우수연제상 수상

이재천·이종후(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태평양 호흡기 학술회의(18th Annual Congress of the 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atory)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조광희(일어일문학과 1)씨
일본어 작문 콘테스트서 최우수

조광희(일어일문학과 1)씨가 주재주일본국총영사관이 개최한 제2회 대학생 일본어 작문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조광희씨는 콘테스트에서 ‘일본, 과연 우익의 나라인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영숙(유엔미래포럼) 대표
27일 문화광장서 강연

박영숙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다양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박 대표는 현재 (사)유엔미래포럼 대표, 세계미래학의 한국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제주관광 1천만 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

개발이의 ‘떡튀’ 가능성 사전 봉쇄를

최근 중국자본의 대규모 투자와 대기업의 제주개발이의 ‘떡튀’ 논란이 제주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에 외부의 투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최현, 한재호, 홍영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관광 1천만 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송재호(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백승주 고려대 교수,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강경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고태민(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박재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전략처) 부장, 좌용철(제주의소리) 정치부장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발제와 토론 요약.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승주(고려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내외 민간자본가가 제주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이들에게 투자 절차상의 편의와 사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특혜를 부여해 이들이 손쉽게 제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에 운용상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커녕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분란과 논란을 키워왔다.

이는 지역여론이 당초 신자유주의적 개발 지상주의 명분에 사로잡혀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자극하는 제도 도입에 열중했다. 이에 따라 도입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제도화함으로써 도정의 자주재원 확보

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제2차 제주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추진에 있어서는 변화된 개발환경에 부응해 도민을 위한 후생적인 실리를 극대화하고 도민의 자산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유한적 토지자본이 반담평적인 방법으로 외자자본에 매각되고 있다. 하지만 도정은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투자명분론에 집착해 부분적인 제도보완 수준에서 이 제도를 계속 운용할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을 비롯해 해안선 일주도로주변 지역의 농경지 상당부분이 국내외 자본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지로 부상하면서 국내외 자본가들이 앞다뮬 제주개발의 본질에 크게 반하는 이 제도에 편승해 투자를 명분으로 이들 지역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한적 토지자본이 헐값에 속수무책 팔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취지 퇴색돼

한정된 토지를 파는 건 지속가능 원칙 어긋나

제주도 투자유치 근시안적 행정 비판받아야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현행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미래에 보다 나은 제주개발의 비전실현을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제주개발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현재와 미래 도민 모두의 이익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가 개발주체로서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소신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중 투자대상사업 범위, 지정효과,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공론화를 거쳐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 이익을 우선고려해 제주개발을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비축제도, 제한적 토지수용제도 및 투자임면제도 등에 대한 개선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중국자본투자 및 관광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근 여유법개정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고 있다. 제주로 급속히 몰려들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그들의 자본의 문제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제가 중국자본의 투자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말처럼 환상적으로 좋은 건지 아니면 암울한 미래로 가는 출발역인지 생각해 보자.

수십년 동안 제주에 수많은 장맛비 환상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제주의 자연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다. 중산간은 이미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로 가득차고 해안은 펜션과 카페 등으로 도배당했다.

이제 우리는 제주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멀리 봐야 한다. 제주의 미래가치는 현재의 가치보다 저평가될지 아니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것인가. 만약 현재의 개발사업이 제주도민들에게 크게 실익이 없고 미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면 현재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외국인의 토지매각을 가능하면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과 정치인, 그 외에도 그들과 결탁한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 자본들이 제주에 하고 싶은 실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1조가 넘는 자본을 투자해 회수하려면 내국인 카지노 밖에 없다. 내국인 카지노가 현실성이 없다면 당연히 부동산 차익을 노리지 않겠는가.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재모(JDC 투자전략처 부장)

대부분 휴양콘도 등 유원지, 관광단지 사업에 투자가 집중돼 있고 최근 중소규모 호텔 및 숙박시설에 지정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다.

특히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이 투자 규모 100억~200억원인 중소규모 호텔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과연 중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지구지정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업종과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필요하다. 특히 외국투자자들에게 제주도 투자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또 올해 10월 기준 총 39개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법인세 감면실적이 저조하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혜택은 취득소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관세 등이 대부분이며 이중 국제에 해당하는 실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업체는 소수이다.

따라서 법인세 관련 인센티브 기간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 감면이 많아지더라도 지방비 감면



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업들이 양질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환경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투자과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기칭 보광법을 만들자’

좌용철(제주의소리 정치부장)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성산읍 섬지코지 일대에 65만㎡ 면적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보광그룹은 74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구 내 미개발 토지 3만7829제곱평방미터를 중국자본에 68억에 되팔고 4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도민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상공회의소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일명 ‘보광법’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사전 검증 차원에서 도의회에 이에 대한 동의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정 고시 전 단계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요건을 강화해야한다. 이는 사후 관리차원의 문제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보광의 땅장사는 관련 법조항이 허술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변경 요건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관광 1천만 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위). 백승주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아래).

투자진흥지구 지정혜제 요건도 높여야 한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민정서 등을 감안해 투자계획대비 실제 투자금액 비율이 70%를 밑돌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판매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일명 ‘떡튀’를 방지할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지구지정계획서를 제출할 때 당초 계획 용도를 벗어난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인제는 판매에 응해야 한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작성해 떡튀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11월 26일까지 모두 10개의 강좌와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 현장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몸짓의 메시지가 언어보다 앞선다

그녀는 몸으로 말한다

맹 소 영 /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방송인의 꿈을 안고 무작정 기상캐스터로 방송계에 입문했다. 고기압, 저기압도 모른 채 시작한 탓에 맨 땅에 헤딩하듯 원고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서곤 했다. 이후 공부를 거듭해 나만의 색을 입힌 정보 전달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방송이 끝나면 애써 써놓은 원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쉬워 글을 쓰던 것이 ‘칼럼니스트’라는 직함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2009년에는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그만뒀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나갔다. 다시 현역 방송인으로 복귀해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회사를 설립했다.

몸짓 보면 ‘척’ 알아야

몸짓 언어라는 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날씨방송과 몸짓 언어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언어로 전달하는 말보다 몸짓 언어가 표현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더 쉽다. 감정이 실린 몸의 표현이 진정한 의사소통이다. 방송인 가운데 기상캐스터가 몸짓 언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몸짓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효과가 다르다. 기상캐스터의 경우 우선 자세부터 다르다. 카메라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자세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지루하다. 45도로 몸을 튼 상태가 시각적으로 안정된 구도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짓’이다. 아무런 손짓을 쓰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힘들다. 하지만 너무 많이 써도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아이돌을 기상캐스터로 내세워 파격적인 방송을 했다. 애교 있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집중도가 떨어진다. 여러 분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취미’이고, 다음은 ‘연애’일 것이다. 이성의 몸짓을 파악하



“입으로 전달하는 말보다

몸짓 언어가 표현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더 쉽다.

감정이 실린 몸의 표현이

진정한 의사소통이다”

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여성들은 보통 은근한 미소를 띠거나 머리를 쓸어 올리는 행동, 발의 방향이 이성을 향해 있는 자세, 목이나 손목 등 가냘픈 면을 강조하는 자세로 이성에 대한 호감을 나타낸다.

반면 남성은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손목시계를 점검한다거나 넥타이를 바로 고친다. 가슴을 활짝 열어 남성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제스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프레젠테이션’은 기상 방송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보조 자료를 갖고, 호소력 짙은 음성으로 몸짓 언어를 써가며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방송이 시청자를 필요로 하듯, 프레젠테이션도 청중을 필요로 한다. 청중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 위

해서는 상대의 관심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청자를 향한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인간이 동물들과 달리 채집 생활을 하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건 원자위의 영역이 넓기 때문이다. 대화나 발표하는 데 있어 시선 처리가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상대의 눈을 맞추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상대가 내 말에 반응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등의 행동의 의미를 파진다. 상대와 내가 연결돼 있는지는 물론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선 교환을 어려워 한다. 준비는 많이 했으나 무대 경험이 별로 없거나 정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거나 스킬이 부족한 경우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청중의 무표정 때문이다.

발표의 핵심은 ‘시선처리’

일단 상대와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은 기본적으로 마주치되 계속 쳐다보는 건 오히려 위협을 줄 수 있다. 시선의 비율과 방향의 문제다. 70~80%는 눈에 두고, 20~30%는 하판에 두는 게 좋다. 눈과 이마 사이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자칫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코까지 바라보는 시선은 사교용이고, 턱밑까지 시선을 두는 것은 친밀한 느낌을 준다. 객석에 앉은 사람마다 눈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뒤를 돌아봐도 되는 경우에는 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PPT는 보조 자료일 뿐이다. 주된 시선은 청중에 뒤야 한다. 시각 자료를 보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골고루 섞어 쓰는 게 중요하다. 시선은 한국에 3~5초씩 두면서 천천히 이동하며 시선 배분을 조율한다. 청중이 대규모일 때는 그룹을 짓고 차근차근 시선을 옮긴다. 눈만을 돌리거나 허공을 바라보지는 않아야 한다. 한 편만 바라보거나, 눈에 힘을 너무 주지 말아야 한다. 무의미하게 쓰는 몸짓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나의 청춘을 맛있게 담그는 방법

노 광 철 / 짐치독 대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다섯 식구가 누우면 딱 차는 단칸방에 살았다. 학창 시절에도 별다른 꿈이 없었다. 장래희망 조사 때 담임선생님이 ‘빈 칸은 안 된다’라고 말하자 ‘대통령’이라고 적었다가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남 꼭 대통령이 되겠다’며 육군사관학교 지원을 꿈꾸자 자연스레 공부라 재미 있었다. 하위 7%에서 상위 0.7%의 성적으로 올라섰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육사 실기시험에 떨어지자 성적도 곤두박질 쳤다. 대학 입학 뒤 재수를 결심하다 학원비용을 벌기 위해 시작할 과외가 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 때 출판한 것이 ‘숨마쿰라우데’라는 문제지였다.

작은 돌부리를 조심해야

하지만 불법과의 혐의로 검사에게 끌려가 모든 걸 잃었다. 빈털터리가 돼 1년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덮었던 신문지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문구를 발견했다. ‘돌부리를 조심해라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있어도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막상 우리가 산을 오르다 넘어지는 이유는 주먹만한 작은 돌맹이 때문이다. 그 돌맹이에 걸려 넘어져 놓고 핑계를 댈다. 이 산은 높아, 너무 험해, 그래서 오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한 순간 경험하는 것은 작은 실수뿐이다. 그 실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실패가 된다. 실수를 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김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우연히 부대 안 도서관에서 신문 한쪽 면에 난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부터다. 제대할 때까지 1년 여



“인생도 김치랑 비슷하다.

김치를 담글 때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맞게 김장을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간 일과시간 후 취사방에서 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우고 인터넷을 이용해 김치 발효 유산균을 공부했다. 정역 후 2009년에 고향 광주의 작은 상가에 점포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사업 시작 3개월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작 5만 원어치를 판매한 게 전부였다. 3명의 직원을 월급을 주기 위해 야간에는 새벽 4시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좋은 배추를 사려고 아침 경매가 이뤄지는 새벽시장으로 곧바로 출근하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았다. 주말이면 모교 동창회 등 여러 행사장을 다치는 대로 찾아가 무턱대고 상 위에 김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홍보에 나섰다.

창업 초기 김치 사업을 한다고 하니 모두가 ‘영통하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김치를 만들기 위해 동의보감을 번역하며 공부하고, 수만 포기의 김치를 담구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도소

에 갖가지 1톤을 납품하게 됐다. 하지만 그해 겨울 지독한 폭설로 인해 갖김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수소문 끝에 여수에 내려가서 이미 다른 사람이 사기로 했던 갖김치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사정하다시피해서 재료를 구해 무사히 1톤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렇게 2009년 김치 판매 첫해 연매출 5만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지난해 유명호텔과 백화점에 김치를 납품하는 연매출 15억원의 회사가 됐다.

성공의 비결은 항상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도 김치랑 비슷한 거 같다. 김치를 담글 때 자신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에 맞게 김장을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담그고자 했던 김치도 없고 목표하는 김치도 없이 김치만 만드는 친구는 김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김치 잘 담그는 비법은 내가 만들고 싶은 김치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재료를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99번 넘어져도 1번 일어났을 때 온 몸을 통해 흐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러한 실패와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워싱턴 금융가 한복판에 ‘미룩’이라는 김치 매장을 열었다. 최근에는 출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김치볶음밥을 파는 사업 아이템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준비된 자만 얻을 수 있는 기회

대학시절에는 방학도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토익점수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명함이 몇 장 남아 있었다. 이 명함 몇 장이 20대를 대표해주는 졸업장이 됐다. 이 졸업장이 외국에 비싼 돈을 주고 가는 어학연수보다, 그 명문대학 졸업장 보다 더 뿌듯하고 행복하다. 대학시절 얻은 것은 토익점수 800점이 아니라 경험 800가지였다. 이 경험 800가지가 제 경험을 더 맛있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진 재료가 부족하다고 걱정 안했으면 한다. 지금, 갖고 있는 재료가 최고의 재료인 것이다.

‘해체·재구성’ 통해 ‘축제·존재’의 공간 돼야

학술기고 **섬[島]-공간의 철학적 접근**



김치완
철학과 교수

그동안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공간인식을 선(線)과 면(面), 여백(餘白)과 채움, 장방형의 입축(立軸)과 입방형의 횡축(橫軸) 구도 활용이라는 점으로 대비시켜왔다. 그런데 중국회화의 특징이 (1)세로로 긴 입축, (2)이동시점 투시법, (3)회화의 매달아 주는 기능과 말아 보관하는 기능[捲縮化]에 있다고 한다. 오늘날 유행하는 웹툰(webtoon)의 세로 스크롤 방식 공간구성과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웹툰의 세로 스크롤 방식은 하나의 칸이 세로 길이를 극대화한 것인데, 스크롤바를 내려가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펼쳐지지 않은 육지, '섬[島]-공간'(SUM[Island]-Space)

오늘날 우리는 2차원의 평면 위에서 3D를 구현하는 기술의 시대를 거쳐, 4D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2차원의 평면 위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2차원의 평면 위에서 섬[島]은 육지에 일점 투시하고 있어서, 경계선이 닫힌 육지와 동떨어진 점(點)으로 표기되거나, 아예 생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입방형에서 장방형으로 그 틀을 바꾸고, 일점 투시에서 이동투시로 지평을 옮겨가는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섬[島]-공간'은 입방형의 면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지만, 장방형으로 무한히 연장되는 공간 속에서는 아직 멀리 떨어져 펼쳐지지 않았을 뿐 '섬의 공간'으로서 두께를 가지고 실재하는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틈[사이]과 모호함을 허용하는 가능성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하면 2차원 평면에 재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선(線)과 면(面)이 아니라 두께를 가지고 말린[捲縮, warp] 공간을 통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단숨에 옮겨 가면서도(tele-port), 연장(延長)되고 확장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비어-있음: 존재공간의 가상(假象)과 실재(實在)

플라톤은 인간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티마이오스』에서 실재세계인 이데아와 그것을 모방한 감각세계 외에 생성의 수용자로서 공간인 '코라'가 있음을 인정했다. 플라톤의 '코라'는 (1)그것이 비록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어 있지는 않고, (2)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최초의 질료'나 '어떤 특성들을 지닌 장소'가 아닌 운동의 장소이며, (3) 그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물들의 구성에 관여(關與)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존재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노자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모든 것의 어머니인 길(道)이 있음을 주장했다. 존재론적 공간으로서 노자의 길은 그 가운데 생성변화하는 사물이 있지만, 그것은 한결 같아서 모이든 분래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흩어지면 각각의 사물을 담는 그릇이 된다. 플라톤과 노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공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횡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비어-있음(being-empty)', 곧 '없음+있음'이라는 독특한 존재양상을 가지고 있다.

잘라-기기: 인식공간의 분할(分割)과 편집(編輯)

공간이 객관적이고 실재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 없이는 인식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의 인식은 이념상으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식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대상사물과 인식 주체인 인간이 모두 변화 생성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아닌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은 노자에게서도 "길[道]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은 변함없는 길[常道]이 아니고, 이름[名]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변함없는 이름[常名]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드러난다.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와 노자의 자연(自然)은 거짓 없는 진실한 세계로서 우리의 제한적인 인식을 뛰어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분할된 공간'이 잘려나가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본래적 세계가 비어 있지만 그곳에서 끊임없이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잘려나간 공간이 편집되면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음과 마주하게 된다.

곧 플라톤과 노자가 목격한 감각세계의 모순은 그것이 모방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이 현실세계에서 현혹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내는 일종의 미끼가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모순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고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로로 긴 입축, 이동시점 투시법, 회화의 매달아 거는 기능과 말아 보관하는 기능은 오늘날 웹툰(webtoon)의 세로 스크롤 방식 공간구성과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사진은 고사인물도 중 무이귀도(武夷歸圖, 왼쪽)와 네이버 웹툰 표지.

덜어-내줌: 실천공간의 해체와 구성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에서는 감각세계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온갖 것들이 생성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힘의 장(field of force)'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내고 있다. 물론 플라톤과 노자의 공간은 개념적 공간이지만, 실제적인 공간인 '힘의 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을 일깨우기 위해 모색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논의되는 공간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사이의 복잡다단한 관계성까지도 포함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공간은 단순히 그 면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이 자리 잡은 장소라는 개념을 가로질러, 실천적 공간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이르고 있다. 이 점은 이미 노자에게서 일점 정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노자의 공간인 길은 여가와 저거라는 경계와 좌표를 해체시키면서, 구체적으로 걷는 행위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실천공간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공간은 인간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지, 그것이 인간성을 확장시켜주는 공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포개진 일상의 '섬-공간'에 대한 제언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상상의 공간(the imagined space)'이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사실상-공간'이라는 면에서 '가상공간(virtual space)'으로 취급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철학에서 다루어 왔던 공간도 그것이 비록 개념상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그러하게-있는 것'을 주



의환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섬[島]-공간(SUM[Island]-Space)'의 실재성도 마찬가지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르면, 섬은 인간의 삶이 현실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육지지역으로서, 그 공간은 '자연적(사실상-그러하게-있는 것)'으로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공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존재와 인식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이다. 계몽주의적 토대 위에 건립된 모더니즘의 기획이 그 이전보다 더 야만적이면서도 교묘한 권력을 낳았다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로 묶을 수 있는 다양한 비판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섬[島]-공간'에 대해 교차하고 있는 두 시선, 곧 그곳에 거주하면서 삶의 이어가는 사람들과 그곳을 일상성에서 벗어난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라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르페브르(H. Lefebvre, 1901~1991)의 사회공간론에서 그 해결 방안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곧 공간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삶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섬[島]-공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축하는 것이다. 그 일상은 전통적 삶의 고집이나 그러한 삶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삶의 공간은 주제와 타자의 시선이 익숙함과 낯설음으로 교차하면서 겹쳐지는 곳으로서, 서로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축제의 공간, 존재(SUM)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권하고 싶은 책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며 컴퓨터 앞에 앉는다. 돌이켜 보면 단 한 번도 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이 대학 교단에 섰다. 이제는 가물가물한 옛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주대학교 기초교육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수법 특강이 가뭇에 단비인 양 나의 마음에 와 닿았다. 교수법 특강의 공통점은 교수가 아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강을 들으면 들을수록 옳은 이야기로 느껴졌고, 때로는 나의 강의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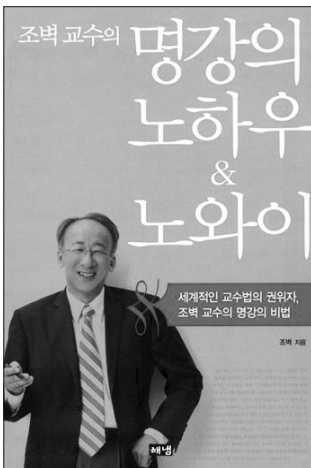
그러나 웬지 모를 아쉬움과 어수선함이 나를 짓눌렀다. 이즈음에 접한 책이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 노와이'였다.

사실 교수법과 관련된 책은 많다. 그러나 이 책의 독특함은 교수법에 관한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습서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 제도들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앞으로도 쉽게 고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수들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인 조벽 교수가 주장하는 교수법에서의 가장 주안점은 교수자 입장이 아닌 학생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선은 다양한 유형의 학생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 환경은 물론 질문의 수준이나 수위를 너무 높거나 낮게 잡아서도 안 됨을 지적한다. 특히 학생들의 평가를 위한 시험 점수에서도 수시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동일한 비중으로 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계산법을 통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점수가 적용되게 한다는 점이다.

교수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설계를 잘하는 것이다. 이 책은 강단에 서기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한다. 그리고 학기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누어 어떻게 강의를 설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가를 저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시험은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시험지를 학생



조벽 지음
『명강의 노하우&노와이』
해냄출판사

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에 관한 교수자의 의견을 첨부함으로써 교육목표의 명확화, 학습 동기부여 및 피드백은 물론 교수자 자신의 강의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받는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획일적 체제 순응형 교육이 여전히 최고의 교육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의 산물로 인식하는 발상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한다. 즉 현대사회는 산업화에서 정보화시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 시대의 맞는 교수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강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왜곡된 정보화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개혁의 핵심요소인 학생, 교육내용, 교육기관의 구조 및 행정 측면에서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교육을 학생 중심, 즉 학생의 자아실현으로 옮겨야 하며, 교육내용은 두뇌의 여러 영역을 고루 발달시키되, 특히 창의력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기관은 지식과 지식인의 열린 유통구조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행정은 새 시대에 걸맞은 행정 기술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양교육의 방향 설정이 대학마다 핵심화두로 떠올라 있다. 앞으로 우리 제주대학교의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걸맞는 교육방향의 설정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손원근
수의학과 교수

제주어, 자료화·교육정책 다변화로 소멸위기 타개해야... 지역 구성원 관심 필요

기고 **소멸위기 언어 보존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어 보전방안**



양창웅
영어교육과 교수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그러므로 제주어를 보존하고 이를 전승하는 것은 제주 문화, 전통 계승과 직접 연결된다. 하지만 최근 제주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축소되어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외국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 및 교육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제주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0년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의해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됨으로써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제주어의 독자적 가치 인정은 곧 제주 문화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제주어를 보존하는 것은 제주 문화 보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소멸위기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언어는 언어 사용자들이 더 이상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할 때 소멸의 위기에 처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화자들에 의해 세대 간 전승이 이뤄지지 않을 때 그 언어는 사멸의 길을 걷게 된다.

언어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가 제시한 사례로서 언어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본 논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네스코는 몇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세대 간 언어 전승 정도,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수, 전체 인구 중에서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비율, 현재 소멸위기 언어를 사용하는 범위 또는 분야의 정도, 미디어의 반응 정도 등의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다음으로 언어 교육을 위한 자료와 읽기 자료의 이용 정도, 정부의 언어 정책, 지역 사회가 해당 언어에 대해 갖는 태도 등을 포괄적 자료로 고려한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전 세계의 소멸위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사라지는 언어에 대한 자료화(documentation)를 폭넓게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언어 사용을 활성화(revitalization)해 나가기 위한 교육과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자료화는 다양한 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수집(collect-

ing), 녹음(recording), 분석(analyzing), 그리고 기록/보관(archiving)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자료화는 단순히 보존(preservation)이나 유지(sustaining)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언어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 작업이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존은 통조림이나 잼과 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인데 반해, 언어 자료화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언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문화 양상을 수집, 기록 및 정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활성화는 언어가 소극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변화를 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피시맨(Fishman)은 사라져 가는 언어 사용 뒤집기(reversing language shift) 즉 언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 행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제주어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점을 살펴보자.

우선, 제주어 자료화를 통해 제주어의 원형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은 방대한 자료의 수집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언어 현황 파악, 사용실태 조사, 사용자들의 태도 조사로 제주어 보존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어 집중 사용 지역 선정 및 전통 문화를 선정해야 한다. 피시맨(Fishman)은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전통,

관습, 문화 활동 시에 사라져가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 소멸위기 언어 중 하나인 아이리쉬어가 사용되는 특정 지역(갤락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이리쉬어 보존과 사용의 중심이 되고 있고 아이리쉬어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마을제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위한 전통 공연에서 오키나와어를 사용하여 문화원형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제주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크다 하겠다. 마을 행사를 비롯한 제주의 전통 행사에 제주어의 적극적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제주 문화 원형을 보존하고 이와 함께 제주어가 사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 차원에서도 제주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다음으로 제주어 교육 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미국 인디언 언어 교육 정책은 조기 교육에서 몰입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인디언이 거주하는 주(state)의 대학원에서 언어학자, 언어교육 전문가들이 대학 강좌, 주기적인 세미나, 학회 등을 열면서 언어 보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 이들은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인디언 언어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해 관련 교육 자격증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학, 학술세미나

를 열면서 언어 교사들에게 교수 방법, 언어 지도의 실제 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우리 제주대학교 등에서는 제주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문 강좌가 개설돼야 하고 양질의 제주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문 강좌 등을 통한 제주어 교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은 제주어 교사로서 더 나아가 지역 언어 전문가로 활동할 때 제주어 보존에 생명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소멸위기 언어 보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기(유아) 교육, 몰입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제주 특화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제주어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례연구 등에서 소개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응용해야 한다.

또한 연구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예, 유네스코, 스미소니언 연구소, 구글 등) 등에서 소멸위기언어 보존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국제 학회 등을 통해 타 소멸위기 언어 현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소멸위기 언어 연구에 발맞추어 제주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제주어의 존재와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다.

또한 제주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어 도제교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디언 언어 전문가인 버클리 대학교의 힌튼(Hinton) 교수가 개발하여 도입한 도제 교육 제도(Mater-Apprentice Program)는 성공적인 미국 인디언 언어 교육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어 보존을 위해서도 The Kaumatua라는 도제 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일정 지역(갤락트)에서 아이리쉬어만을 사용하여 세대 간 자연스런 접촉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언어가 전승되고 있다. 제주어에 유창한 사람들이 도제 교육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제주어의 원형을 보존하고 언어 사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언어 접촉은 제주도민의 제주어에 대한 인식 고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주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의 다각적인 협조체제 구축 △제주어를 통한 제주의 정체성 정립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강조 △제주어 현대화를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소멸위기의 언어를 유지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외부인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이다. 즉 이들 언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유지되면서 강화되는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교수시론

‘상처’에 대한 기억 있다면 ‘사과’하라

등문칼럼

UN을 당신의 무대로 만들길



김은혜
중어중문학과 교수

“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나와는 ‘틀린 당신’이 아니라
‘다른 당신’을 인정하면 어떨까

”

독자기고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웃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오원중
국어교육과 1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교회 앞을 지나다 미하일을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세몽은 그를 지나치려 하지만 다시 돌아가 미하일을 데려간다. 그의 부인은 화를 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 부인은 음식을 주었다. 미하일은 그때 한 번 웃었다. 이후 미하일은 일을 배운다. 일 년 뒤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을 신발을 요구한다. 그는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만들었다. 주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조금 이따가 아까 그 손님의 하인이 달려와 주문을 변경했다. 젊은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 들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하고 인사했다. 이때 미하일은 웃었다. 6년 후에도 미하일은 변함없이 세몽의 가게에서 일을 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두 여자 아이의 구두를 주문한다. 그 부인에게 두 아이에 관한 사연을 듣게 되는데 그 부인은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된 두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때 미하일은 마지막 세 번째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방 안이 밝아지며 미하일이 천사가 된다. 미하일은 원래 천사였는데 6년 전 한 아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 오기 위해 세상에 내려왔다. 아이 엄마가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죽게 될 거라며 애원하자 미하일은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아기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질문의 해답을 찾으라고 인간 세계로 보냈다. 미하일은 답을 찾을 때마다 웃었다. 미하일이 처음 웃은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았다. 세몽의 아내는 처음에는 미하일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하일을 포용하였다.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의 답은 바로 ‘죽음’이었다. 미하일은 불쌍함을 느껴 아이의 엄마의 혼을 데려오지 않으려 했으나 사람은 결국 죽음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하일에게 전해주려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의 해답은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중간소음으로 결국 이웃을 죽이거나, 같은 반 친구들을 따돌림시켜 그 친구를 죽음의 길로 몰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식이 돈 문제로 부모를 폭력한다. 기본적인 사랑마저도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고경미
언론홍보학과 3

최근 우근민 도지사의 새누리당 입당과 골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도지사는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뛰어나야 할 책임이 있기에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확충,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등의 현안을 정부,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 뒤로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철세정치인’이라고 비난받게 됐다. 또한 제주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는 등 비난했다. 이는 그 당시의 말을 믿고 찍었던 유권자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골프 사건 또한 사람들의 신임을 잃게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대체 지역분부장을 맡고 있음에도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제거하다 습진 애했리당의 영결식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과 골프회동을 가진 것이다. 우 지사는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장례식도 가야 하지만 제주

대학생들의 정치 무관심 ‘심각’

미래를 위해 세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도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입당차이로 인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지사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필자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초심불망(初心不忘)’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초심불망(初心不忘)’이란 처음에 다진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우 지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입에서 ‘철세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새누리당 입당 문제로 오랫동안 불명 마음가짐의 문제로 있다.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생각과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행동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지역정치에 대해 관심을 뒀으면 한다. 필자의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물어보았을 때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제주도의 전반적인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정치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우 지사가 언급한 제주공항 확충,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등의 현안이 잘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한다.



고은경
지리교육전공 97학번
KOICA 제주지역
커뮤니티 대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일하는 UN.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유엔 산하 기관에서 한국인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물론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열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면 여러분도 유엔을 본인의 무대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유엔 기구에서 근무했다. 이 때 주변에 함께 일했던 동료 한국인들은 국내에서 최상위 랭킹에 드는 대학 출신들이었고, 외국 동료들도 하버드, 스탠포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출신들도 많았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토종 ‘국내파’이며 ‘지방대 출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경쟁력은 바로 개발도상국의 ‘현장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글로벌 이슈, 평화, 인권, 빈곤퇴치, 사회개발 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유엔은 개발도상국이 주요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현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제주대 사범대학 졸업 후, 증등사회(지리)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시험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겪은 뒤 시선을 해외로 돌렸다. 코이카(KOICA, 정부 해외 무상원조 기관) 산하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으로 2년간 스리랑카에 파견되어 국비지원을 받으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현지의 한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전공을 살려 강의를 하고, 교육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실행했다. 또한 2004년도 인도양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덮치면서, 긴급구호의 현장에서도 일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현장의 경험과 전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후 유네스코, UNDP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국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양한 해외봉사의 기회를 찾아 최대한 많은 현장 경험을 쌓아 나가고, 여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찾아 본인 스스로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엔은 다양하고 수많은 산하기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떤 전공 분야도 다 연관되어 일할 수 있다. 전공 공부에 충실하고, 온·오프라인 도서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영문 자료들을 많이 읽고, 특히 평소 본인이 관심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각종 영문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의 공용어는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로서 아랍어, 스페인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언어를 찾아 실력을 키워야 한다. 출근 첫날부터 바로 영어로 실무(회의, 토론, 발표, 보고서 및 공문서 작성 등)를 봐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어실력이 필요하다. 외국어는 평소에 생활화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공 공부, 야학 실력, 해외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인성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인성이 떨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 어떤 조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타문화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조화롭게 어울리는 태도, 나눔 정신의 실천이 중요하다. 유엔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달려 있다. 앞으로 유엔 기구, KOICA 또는 국제개발NGO 등을 통한 다양한 국제 활동의 현장에서 동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소속,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계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000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press@jejuun.ac.kr

2. 국제화 역량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영어우수 장학금 지원	계열별등급별 영어 공인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선발방법: 경력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인증된 점수 - 선발인원: 신규자 450명, 향상자 150명	1~4학년 (휴학생 등 제외)	• 신규자 - 1등급: 30만원 - 2등급: 20만원 - 3등급: 10만원 • 향상자: 점수별 차등지급	• 선발: 1차('13. 10월 중), 2차('13. 12월 중)	학생복지과 (754-2053)
단기파견 지원	방학 중 단기 교류수학 프로그램(영어집중프로그램) 운영 - 지원자격: 우수신입생(우수선생), 토익 우수자 및 학부실적 2.7이상 한미학생회의 참가	우수신입생 및 영어영양 우수자 (1학년) 20명 내외	• 1인당 300만원	• 신청: '13. 11월 중 • 파견: 동계방학 중(6주)	
장기파견 지원	필리핀대학 장기파견 교류수학생 지원 프로그램 - 파견기간: 1학기 - 지원자격: 우리대학과 외국대학 파견 교류수학생 선발기준에 의함	학교대표자 3명 내외	• 1인당 300만원	• 신청: '13.3.1.까지 • 행사기간: '13.7.3 ~ 7.31	
해외 교육실습	세계화 선도 교사 양성을 위한 해외 교육생 실습 - 실습인원: 30여명	지원자에게 부합하는 재학생 200여 명	• 자비: 300만원 • 가계곤란자: 500만원	(1학기) • 신청: '13. 10월 • 파견: '13. 3월 (2학기) • 신청: '13. 3월 추가신청: 8.2 ~ 8.6 '14년 1학기) • 신청: '13.9.3 ~ 9.12 • 파견: '14. 3월 ~ 4월	국제교류본부 (754-2198)
테마별 세계 교육기행	교수 또는 직원과 학생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공 및 교양과목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현지에서 체험하는 학습연장 활동 - 지원자격 제외: 각종 해외연수 7일 이상 수혜자 및 8학기 이상 등록자	1~4학년 20명 내외	• 아시아: 80만원 • 오세아니아: 150만원 • 유럽·미주: 200만원	• 모집기간: '13. 9. 9 ~ 9. 12 • 탐방기간: '13. 12월 ~ '14. 2월	학생복지과 (754-2041)
멀티미디어 온라인학습 프로그램	학습자에 의한 자율학습 제공 및 학습자의 영어 실력에 수준별 학습 가능	1~4학년 500명	• 사운드라이브라리실 무상 이용 - 영어자율학습 가능	• 오픈시간: (월~)9시 ~ 17시	
FLI 영어 역량강화 지원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자 중 우수수강자를 선발하여 수강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외국어특별강좌 중 영어강좌 - 지원인원: 500명	1~4학년	• FLI 영어강좌 수강생 중 출석률 80% 이상인 학부 재학생에게 수강료 일부지원(50%) • 우수수강자 대상 무료 모의토의	(5차) • 모집기간: '13. 10. 14 ~ 10. 24 • 강좌기간: '13. 10. 28 ~ 12. 6 (6차) • 모집기간: '13. 12. 16 ~ 12. 26 • 강좌기간: '14. 1월 ~ 2월	외국어교육원 (754-2291)
영어회화 캠프	모의 토익 경시대회 입상자 상금 지급 - 선발인원: 15명 이내 - 선발기준: 시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외국어교육원 강좌 1회 이상 수강자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발	1~4학년 30명	• 최우수: 20만원 • 우수: 15만원 • 장려: 10만원 • 노력: 5만원	(제1회) • 시험실시: '13. 5월 (제2회) • 모집기간: '13. 10월 중 • 시험실시: '13. 10월 중	
	학생수준별 영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방학 중 운영) - 선발인원: 80명 이내 - 선발기준: 교양영어 100 단위수준 또는 토익 490점 이하인 학생	1~4학년	• 출석률 85%이상인 학생에게 참가비(10만원) 전액 지원	(하계방학) • 운영기간: '13. 7월(4주) (동계방학) • 모집기간: '13. 11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4주)	

3. 학습 역량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문화평정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및 글로벌 감각 향상을 위한 윤니버스 형태의 초청 강좌 및 공연	1~4학년	• 학점인정	• 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 • 운영기간: 1학기, 2학기	
재학생 학습과정 분석	재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만족도,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의 실태 파악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	1~4학년 3,000명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학습과정 분석 진단	• 설문기간: '13. 11월 ~ 12월	기초교육원 (754-2036~7)
재학생 학력 진단 프로그램(수학) 진단평가	대학기초수학 콘텐츠 및 평가시스템	1~4학년	• 온라인 무료강좌 및 진단	• 운영기간: 연중	

프로그램	주요내용	참여대상 및 인원	지원사항(혜택)	추진시기	문의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학과 및 교수 단위의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설계운영 - 전공 학습결손이 초래되는 특정 교과의 기초 영역	1~4학년 반별 20명 내외	• 무료강좌	(동계방학) • 모집기간: '13. 12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 ~ '14. 2월	
노년노령 학습 동아리	기초학력(글쓰기, 수학) 상담실 운영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협동학습 동아리 - 동아리운영: 교과영역학습, 교과외의 영역 학습, 학교생활 - 참여자격: 저학년 및 자유영역 - 활동시간: 재학생 중 6~8명으로 구성된 그룹 - 결과보고회 따라 우수팀 시상	1~4학년 150명	• 멘토 상담 및 기초학력 진단	• 운영기간: 연중	
모다들일 북적북적	재학생들의 기초 학력향상 배양과 학내 독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 모집대상: 일반자유, 고전강좌 - 팀운영: 지도교수 1인+재학생 4~6인	1~4학년 85명	• 운영지원금 1인 15,000원 • 도서지원금은 실험로 지원 (1인 최대 6만원)	(동계방학) • 모집기간: '13. 12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 ~ '14. 2월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관리 워크숍(학습캠프, 학습박람회 운영) -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한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습문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기간: 수시 • 운영기간: '13. 5월 ~ '14. 2월	
	단과대학 학습법 맞춤형 워크숍 -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콘텐츠-교재에 맞춘 학습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기간: '13. 9, 4(1차) '13. 10, 16(2차) • 운영기간: '13. 9월 ~ '14. 1월	기초교육원 (754-2036~7)
	외국인 유학생 학습법을 워크숍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대학의 학습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전략 및 한국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튜터링 제도 운영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기간: '13. 10월 중 • 운영기간: '13. 10월 ~ 11월	
학습법 공모전	아리토로대회 - 공모된 주제에 따라 예선과 본선을 진행하여 우수팀 선발	1~4학년	• 우수 시상 - 최우수(50만원), 우수(30만원), 장려(20만원), 스피커상(10만원)	• 모집 및 운영기간: '13. 11월 ~ 12월	
	수리리포트 - 2013학년도 전공 및 교양리포트(팀 리포트 제외)	1~4학년	• 우수 시상 - 최우수(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10만원)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 창의적인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공유	1~4학년	• 우수 시상		
	테마로 여는 학습법 특강 - 교육인원: 주제별 150명 이내 주제별 공부법별 워크숍(火·공·비) - 교육인원: 주제별 25명 이내	1~4학년	• 무료강좌	• 모집 및 교육기간: 수시(매월 1~2회 운영) • 모집기간: '13. 9월 상이 • 강좌기간: '13.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학습컨설팅 학습방법에 대해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1 맞춤형 서비스	1~4학년	• 학습스타일 진단 및 1:1 맞춤형 학습컨설팅	• 모집기간: '13. 9, 16~ 수시(접수) • 운영기간: 연중	
서포터즈 운영	학습공동체 모니터링 및 서포터즈 활동 - 모집인원: 10명 이내	1~4학년	• 지원금: 시간당 5천원 • 활동 인증서 발급 등	• 모집기간: '13. 5월 • 운영기간: 연중	
교육기부 프로그램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적 약자 교육기부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연계 재능기부 프로그램 학내 부속기관 체험 프로그램	1~4학년 50명	• 재료비 및 증식비 등 • 봉사실적	• 모집기간: '13. 12월 중 • 운영기간: '13. 12월 ~ '14. 1월	학생복지과 (754-2051)
문화창조 - old&new	재주문화 키워드 - 제주의 바다, 땅, 사람들 주제로 한 인문 강좌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1~4학년 40명	• 무료 강좌 및 체험 • 재능기부	• 신청기간: '13. 9. 11 ~ 9. 25 • 운영: 강좌(9.27), 체험(9.28)	박물관 (754-2241)
	간호대학 영세소산인 건강관리 자원봉사 - 봉사인원: 70명 - 수혜인원: 제주소나리 재래시장 상인 약 1000여 명	간호대학 학부생	• 교통비 및 증식비 등 • 봉사실적	• 봉사기간: '13. 8. 20 ~ 8. 22	간호대학 (754-3742)
단과대학 특성화	교시대 공동 수월실기 경연대회 - 참가신청은 12월초로 제한, 학과(전공)별로 2팀 이내로 진행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2~4학년	• 총장상/도교육감상: 50만원 • 학장상: 30만원 • 장려상: 20만원 • 참가상: 10만원	• 모집기간: '13. 8월 • 운영기간: '13. 8월 ~ 9월	사범대학 (754-3202)
	International Summer School - 실제 미국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식 습득 등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부생, 교직과정 이수자	• 무료강좌	• 모집기간: '13. 8월 • 운영기간: '13. 6월 ~ 7월	

» 입시 특집 기획 – 제주대 입시 가이드

취업률, 거점국립대 2위·국립대 6위 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제주대학교 2014학년도 정시모집이 다음달 20일부터 진행된다. 면접, 실기고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5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제주대에 지원할 고등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입시 제도와 제주대에 대해 소개한다. 고등학생들이 제주대를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시모집의 원서접수는 제주대 입시 홈페이지(ipsi.jejunu.ac.kr)와 유웨이애플라이(uwayapply.com)에서 인터넷으로 다음달 20일부터 5일간 가능하다. 전형일정은 각 학과·단과대학마다 면접, 실기고사 등을 거쳐 2월 5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제주대는 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에서 나·다군을 모집하며 예술디자인대학의 경우 음악학부는 나군, 미술학부와 산업디자인학부는 다군으로만 모집한다.

지난해 입시와 달라진 점

지난해와 달리 수능이 A, B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지원 자격 및 가중점수에 큰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수능을 치른 학생이면 누구나 제주대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A형과 B형에 따라 지원자격의 유무가 갈린다.

체육학부, 예술디자인대학(음악학부, 미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을 제외한 학과는 외국어 영역 B형을 치른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외국어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A, B형 응시자 모두 대부분의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어교육과는 언어 A형만, 수학교육과는 수리 B형과 과학탐구영역을 치른 학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과학교육과와 수의예과는 과학탐구영역을 치른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가중 점수도 다르게 적용된다. 체육학부, 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는 외국어영역 B형 백분위의 150%를 본다. 언어, 수리는 A형은 백분위의 108%, B형은 백분위의 150%로 가중점수를 준다. 탐구는 인문·사회계열,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는 92%의 가중점수를, 자연계열(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제외)은 과학탐구영역은 92%를, 사회탐구와 직업탐구영역은 75%를 가중점수를 준다. 체육학부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을 같은 배점으로 평가하며, 음악학부, 미술학부, 산업디자인학부는 언어와 외국어 영역을 같은 배점으로 평가한다.

교육여건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고등학생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말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목표로 한다. 2학년이 되면서 목표는 1학년 때보다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나는 In 서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3학년이 되면서 목표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수능을 치고 나면 어디든 합격만 되면 가겠다고 말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제주대를 목표로 잡은 고등학생은 소수일 것이다. 제주대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학생이 서울로 가지 못한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원치 않더라도 제주대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이 ‘성적 때문에 제주대에 지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은 ‘입시컷’이 대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입시컷은 그 학교를 가기 위한 성적대를 말한다.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등급이 나와야 한다’, ‘등급컷으로 보면 이 대학이 저 대학보다 좋다’와 같은 식이다. 이는 바람직한 인식이다.

물론 등급컷이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 일례로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있다. 제주대의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는 39위다. 홍익대가 38위이며, 40위가 서울여대이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지만 제주대가 밀리지 않는다. 물론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 위치한 대학들과 비슷하게 평가하는 기관도 있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상세하게 들어가면 제주대의 교육여건은 7위다. 교육여건은 장학금 비율, 교육비 지급률, 교수확보율 등 대학교가 교육을 위해 얼마만큼 투자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를 보면 제주대는 재학생의 교육에 많은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평가를 보면 제주대는 평판도와 국제화 지표가 타 대학에 비해 낫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평판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에게 불리한 지표이고, 국제화 지표는 2008년 70만점에 3.24점에서 2013년 50점 만점에 11.75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보면 제주대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과 비교해 밀리지 않고, 날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거점국립대로서 제주 선도 및 인재 육성

교육부가 공시한 제주대의 취업률도 52.8%로 거점국립대 중 2위, 국립대 중 6위다. 고등학생들이 보면 52.8%의 취업률은 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을 산정일을 살펴

보면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취업률을 8월 졸업생은 다음해 6월, 2월 졸업생은 당해년도 6월에 발표한다. 게다가 국립대는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다 보니 취업률이 높지 않은 학과도 많다. 그러다 보니 특성화된 국립대가 아닌 이상 공식 취업률이 60%가 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국립대의 졸업생은 졸업을 한 지 3년 내에 8~90% 이상이 무리 없이 취업하고 있다.

제주대는 취업전략본부 운영, 취업 관련 교양 강좌 개설, 취업 코디네이터, 국·내외 인턴십,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대는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갖고 있다. 제주대 학부생은 연간 평균 등록금이 378만3000원이다. 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률도 높은 편이다. 1인당 평균 장학금 지원액은 184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등록금의 48.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역거점국립대 4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교원 양성 거점대학(GTU) 사업, BK21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굵적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수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으며, 학생들도 참여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대가 거점국립대다 보니 제주도도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도 많다. 또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테크노파크(JTP) Daum, Nexon, 등 많은 기업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취업도 가능하다.

제주대는 단순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 아니다. 제주지역을 선도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제주대는 지금도 발전해나가고 있다. 지방대학이라는 선입견을 지우고 제주대를 바라보자.

김동현 기자

» 현직 고교 교사들이 말하는 제주대란?

서귀여고	부지원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	중앙여고	임용진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
다양한 전공 개설돼야		학과·전공 안내 충실히	

“진학상담을 할 때 국립대학인 제주대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다. 실제로 제주대는 학생들의 학구열도 강하고 등록금도 저렴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좋은 대학이다.



“제주대는 제주도 유일의 종합대학교이고 선도대학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학과 선택시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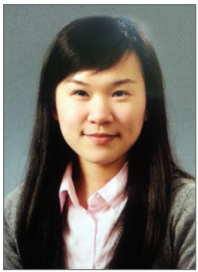
그러나 학생들을 제주대에 보내려고 해도 원하는 전공학과가 없어서 욕지권 대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전공학과가 개설됐으면 좋겠다.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인센티브제, 기업과 대학생 간의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을 강화한다면 좋겠다.”

서귀포고 김은미 교사/진학상담

신성여고 이용광 교사/진학전략부장

우수한 제주대 홍보강화를

“고등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제주대 홍보대사와 방문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세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경제적인 부문이나 학생들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제주대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타 대학에 비해서 신입생 유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제주도내 고등학교 교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입학사정관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입생을 유치한다면 좋겠다.”



오현고 강효식 교사/진로·진학상담부장

제일고 변태우 교사/진로상담부장

취업에 만전 기하길

“제주지역 출신 기업인들의 협조를 얻거나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취업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제주대를 졸업해 확실한 진로가 정해지면 좋겠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육지 국립대학들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형 개발에 힘을 쓴다. 그런데 제주대의 경우 그런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제주대에 갈 수 있는데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제주대가 지역명문대학으로서 더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들과 취업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취재·고주희·서예린·부찬우 기자

라운은 ‘즐겁다’는 의미의 순 우리말입니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라운그룹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라온가족은 현지 법인화를 통해 지방세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운 임직원 369명 중 97%인 358명이 제주출신입니다. 모기업인 라온건설도 제주현지 법인입니다.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라온골프클럽, 라온프라이빗타운 농·축·수산 식자재도대부분 제주산입니다.

라운그룹은 라온골프클럽과 라온목장, 더마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라온호텔&리조트, 라온투어, 라온명품관 등의 관광사업을 통해 제주 서부권을 국내 최대 체류형 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라운가족은 앞으로도 제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써,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AON GOLF CLUB
라운골프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5-1000 FAX 064-795-1001

RAON PRIVATETOWN
라운프라이빗타운

라운프라이빗타운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8008 FAX 064-795-8051

The馬PARK
더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월림리 산8번지
TEL 064-795-8080 FAX 064-795-8081

RAON名品館
라운명품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TEL 064-795-3200 FAX 064-795-3209

RAON TOUR
라운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6-9651 FAX 064-796-9654